

민선8기 전북도정 마무리... 김관영 도지사의 소회

“전북의 가능성 현실로... 더 큰 도약 토대 남긴다”

Q1. 민선8기 4년을 마무리하는 소회는?

민선8기를 시작할 당시 전북은 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 지역소멸 위기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북이 가진 가능성을 믿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도정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4년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을 만들고, 미래 산업과 기업투자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다진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변화와 혁신을 선택해 주신 도민 여러분 덕분에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위기 앞에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선8기는 제 개인의 시간이 아니라 전북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한 소중한 여정이었습니다.

Q2. 민선8기 도정의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가장 큰 성과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미래산업 기반 구축, 그리고 전북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북은 특별자치도 출범을 통해 자율성과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지방사태의 모델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새만금을 중심으로 이차전지와 수소, 방위산업, 바이오, 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며 전북 산업구조의 전환을 본격화했습니다.

다. 현대자동차그룹 투자 유치에 비롯한 대규모 기업투자를 이끌어내며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2006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은 전북의 가능성과 역량을 국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림픽 유치는 단순한 국제행사 유치를 넘어 전북이 세계와 경쟁하고 협력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준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과거의 전북이 기반을 다지는 단계였다면, 이제 전북은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이끄는 지역으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Q3. 도정을 이끌어 가장 어려웠던 점과 아쉬움이 있다면?

민선8기 동안 예상치 못한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새만금 세계사가 우르르바리 이후의 위기 상황과 국가 예산 확보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은 전북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기 때마다 도민과 정치권,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주셨고, 이를 통해 전북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북이 더 단단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머물고 돌아오는 전북을 만드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4. 민선8기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도정 철칙은 무엇입니까?

민선8기 도정의 핵심 가치는 '도전 정신'이었습니다. 전북은 오랫동안 가능성은 크지만 변화의 속도가 더디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저는 전북이 더 이상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과감하게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도전은 제도적으로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이어졌습니다. 누구도 쉽게 가지 않은 길이었지만 새로운 권한과 자율성을 확보하며 전북 발전의 새로운 틀을 만들었습니다. 산업적으로는 이차전지와 수소, 방위산업, AI·데이터 산업 등 미래산업 육성에 집중하며 산업지도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2006 하계올림픽 유치에 도전하며 전북의 가능성을 세계 무대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저는 도정 운영에서 작은 성공 사례 하나하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업투자 유치, 청년정책, 농생명산업 혁신, 문화·관광 활성화 등 분야별 성과를 차곡 차곡 쌓아가며 도민들에게 '전북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결국 도정은 결과보다 과정에서 지역의 역량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게 만듭니다. 민선8기는 전북의 한계를 이야기하기보다 가능성을 증명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미래산업 기반 구축 전북 위상 끌어올려 챔버리 이후 위기 등 예상치 못한 난항도 도전 정신은 핵심 가치 도정 등에서도 이어질 것”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도전 정신이 전북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Q5. 민선9기 도정과 전북의 미래를 위해 꼭 이어져야 할 과제가 있다면?

전북은 지금 중요한 성장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이차전지와 바이오, 방위산업, 수소, 재생에너지, AI·데이터 산업 등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시작이 아니라 정착입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미래 산업들이 전북에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조성이 실제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청년들이 전북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하나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는 2006 하계올림픽 유치입니다.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전북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 글로벌 도시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역사적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전북이 반드시 올림픽을 유치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시는 저력과 자신감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전북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Q6. 앞으로의 전북과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 말씀 해주십시오.

민선8기 4년은 전북의 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한 시간이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미래산업 육성, 대규모 기업투자 유치, 2006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 등 어느 하나 쉬운 과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포기하기보다 믿고 도전하고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전북의 미래를 바꾸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전북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과거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고, 작은 성공들이 쌓여 더 큰 변화의 가능성을 만들어 냈습니다. 민선8기의 가장 큰 성과는 개별 사업의 성과를 넘어 전북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확인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도전이 도정과 도민의 일상에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향해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작은 성공을 축적해 더 큰 성과를 만들어 가는 문화가 도정 전반과 지역사회에 더욱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도전하는 전북, 가능성을 믿는 전북, 함께 성장하는 전북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미래입니다. 지난 4년간 보여주시는 도민 여러분의 열정과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만호 기자

민주 김의겸 의원, 국가산단 전력공급 문제 해결 나서

군산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고질적인 전력 공급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기업들의 증설 설비 가동을 위한 전력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던 상황에서 국회와 한국전력이 긴급 협의를 통해 적기 공급에 적극 나서기로 하면서 기업들의 불안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은 지난 28일 군산시 미장동 지역사무소에서 군산 국가산업단지 전력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산 국가산단 입주기업인 A사가 공장 준공 일정에 맞춰 전력을 공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긴급히 마련됐다.

A사는 최근 한국전력으로부터 송·변전 설비 부족을 이유로 공장 준공 시점에 맞춰 전력 공급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생산 차질은 물론 공급계약과 관련 지연에 따른 대외 신뢰도 하락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간담회에서 A사 관계자는 “전력이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생산 일정이 차질을 빚고 계약 이행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적기 전력 공급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군산과 새만금 산업단지의 미래 전력 수요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전력은 당초 소극적이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산업단지 내 전력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업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변압기 신설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공장 준공 일정에 맞춰 전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전의 전환적인 입장 변화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군산·새만금 산업단지의 근본적인 전력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오만호기자·군산=김만호기자



전북 반도체 산업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준비위원회) 소속 회원 19명은 29일 오전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새만금을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전략 거점으로 지정하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북은 호남의 희생양인가?... 새만금 반도체 전략거점 지정하라”

범도민 유치 추진위, 전북 반도체 산업 유치 당위성 강조

전북 반도체 산업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준비위원회) 소속 회원 19명은 29일 오전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새만금을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전략 거점으로 지정하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광익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백남운 목사가 모두 발언을 통해 전북의 지속적인 산업 소외 현실을 지적하며 반도체 산업 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백 목사는 “전북은 국가균형발전이

라는 이름 아래 수십 년 동안 희생을 감내해 왔지만, 미래 국가경쟁력에서도 또다시 소외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새만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거점임에도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에서 반반이 제외되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은 지역경제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산 업”이라며 “전북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 새만금을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후 전북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인 정석동 목사와 대한성공회 허종현 신부가 공동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추진위원회는 정부와 정치권에 △새만금을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전략 거점으로 지정할 것 △전북특별자치도가 반도체 산업 유치 범도민 대책위원회’를 즉시 구성할 것 △국회가 반도체 산업 전북 유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가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에 적극 협력할 것 △전북도민 모두가 반도체 산업 유치 범도민 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오만호 기자

전주시의회 혁신진보시민연대 “출범 흠집내기 유감... 민주당과 협상 나서야”

전주시의회 비야권과 무소속 시의원들의 교섭단체인 ‘혁신진보시민연대’가 자신들의 출범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자리였을 뿐, 특정 정당을 겨냥한 정치 공세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혁신진보시민연대(원내대표 경현철)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출범 기자회견 이후 제기된 민주당 측의 비판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협치를 위한 자세에도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혁신진보시민연대의 원 구성 협상 과정이 사전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언론을 통해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

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자신들의 기자회견은 새로운 교섭단체의 출범을 알리고 시민들로 부터 비판받은 과거 의회의 명폐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자리였을 뿐, 특정 정당을 겨냥한 정치 공세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혁신진보시민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이 출범 취지를 왜곡해 민주당 흠집내기’로 규정하며 소모적인 정치 공방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는 시민들이 기대하는 협치와는 거리가 먼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주시의회에서 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

큼 다수당으로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당 독점의 폐해를 피코는 하지 않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다당성과 포용을 바탕으로 변화된 의회 환경을 인정한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의회 구성은 시민들이 선택한 결과인 만큼 이를 의회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진보시민연대는 민주당에 공식 협상을 제안하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협치와 의회 개혁을 위해 민주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 테이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만호 기자

“정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서 전북 소외 없어야”

민주 도당, “삼성·SK하이닉스 호남권 반도체 투자 환영” “전북, 반도체 산업 입지 경쟁력 갖춰” 균형 투자 배분 촉구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당(위원장 윤준병, 사민)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을 환영하면서 도 국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전북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의 균형 있는 투자 배분을 촉구했다.

윤준병 도당위원장은 29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 추진은 수도권 중심 산업구조를 분산시키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상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북도당은 이날 “대한민국 대도와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제시된 호남권 반도체 투자 구상이 국가 첨단산업 육성과 지방 주도 성장전략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80여 년간 국가 첨단산업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호남이 미래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읍 역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첨단 방사선연구소 등 국가 연구기관이 집적돼 있어 반도체 공정과 첨단소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연구개발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KTX 광역 교통망을 활용한 산업 연계성도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전북도당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투자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익산과 정읍을 비롯한 전북의 산업적 역할이 적극 반영될 경우 호남권 전체가 상생하는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오는 2027년부터 추진 예정인 현대자동차 새만금 AI 데이터센터와 로봇 제조공장 구축 사업의 성공을 위해 물류 교통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현대자동차의 2단계 피지컬 AI 투자계획도 신속히 확정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만호 기자

학대피해아동 일상회복 지원 민주 윤준병 의원,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와 회복을 강화하기 위해 ‘학대피해아동 일상회복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 수와 학대 발생 건수 등 실제 수요를 반영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운영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의 일상 회복과 정인지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법적 업무로 명시하고, 이에 필요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근거도 담았다.

윤 의원은 “학대피해아동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회복을 위해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 발의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북도당은 전북이 반도체 산업 입지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익산은 호남선과 전라선이 교차하는 철도 교통의 중심지로 KTX를 통해 수도권과 광주, 부산을 연결하는 뛰어난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새만금과 군산항을 연계하는 물류 거점으로 산업단지 확장도 우수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제시했다. /오만호 기자